

광주 북구 화재 5등급...나주·보성·영암 교통사고 5등급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안전지수' 분석해보니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자체별 안전지수에서 전남은 화재와 교통사고, 광주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흡, 화재에 취약한 농산어촌 산재, 섬, 오지 등 교통 및 화재 취약지 다수 분포, 교통안전의식 미비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반 안전지수 등급 평가가 지난 2013년 화재 및 교통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2년간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농산어촌에 도로, 소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 1592건 화재, 전남 10개 군 소방서 없어=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소방서 설치 비율은 전국 최하위다. 2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곳에 소방서가 없는 것이다.

소방서 1곳을 신설하는데, 지방비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도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전남도가 매년 1곳씩 소방서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는데 앞으로 1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9개 유인도서 중 소방차가 배치된 곳은 14곳, 119구급차가 배치된 곳은 5곳, 보건지소·진료소가 있는 곳은 9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 상반기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592건으로 하루 평균 8.

79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7명·부상 46명 등 총 53명이고, 재산피해는 90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15년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차량 1만대당 사망률이 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남의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보호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가 좁고, 굴곡이 잦아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점도 상당수다.

지난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모두 8167건에, 101명이 숨지고 1만32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다.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 944건(1953명 사상) ▲신호위반 사고 994건(1759명 사상) ▲횡단보도 사고 197건(210명 사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7959명에 달했다.

◇광주 북구·동구, 전남 완도·나주·보성·영암 '5등급'=지역안전지수 등급은 사망·사고발생 통계 등 위해지표, 위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지표를 구성했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38개 핵심지표를 사용해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산출했다. 위해지표는 자연재해 사망자수, 화재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교통사고 4~5등급 최악

전남 목포·무안·영광은
화재 안전 1등급 받아

자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안전사고 발생건수, 자살 사망자수, 감염병 사망자수 등이다.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지수만 공개했다.

등급 간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해 1~5등급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시·군·구로 그룹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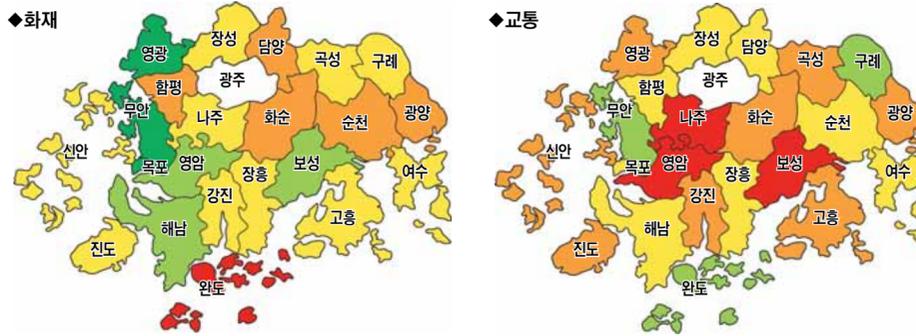
먼저 광주의 경우 화재 분야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2등급, 광산구가 3등급, 동구가 4등급, 북구가 5등급으로 분류됐다. 북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다, 취약지구가 곳곳에 분포돼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모두 낙제에 해당하는 4~5등급에 분포돼 있다.

전남의 시 가운데 화재 분야에서는 목포가 1등급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여수·나주가 3등급, 순천·광양이 4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를 했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목포·여수·순천이 3등급, 광양이 4등급, 나주가 5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군지역 가운데 화재 분야에서는 보성·

■ 광주광역시 안전등급 지도



■ 전라남도 안전등급 지도



해남·영암이 2등급, 곡성·구례·고흥·장흥·강진·장성·진도·신안이 3등급, 담양·화순·함평이 4등급을 받았다. 교통 분야에서는 구례·무안·완도가 2등급을 받았다.

이순만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사망자가 많고, 소방 인프리가 취약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통안전캠페

인을 벌이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천정배 "8월말 신당 구체화...현역도 함께할 것"

"호남 넘어선 전국적 개혁정당 돼야...기초작업 하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추진 일정과 관련, "8월 말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당을 만든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 될 테니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아직 신당을 만든다는 결심을 못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춰지면 신당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신당 창당의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인재 영입과 관련, "신당이 되려면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삼고초려 노력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누구를 확정해놓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며 "현재로서는 기초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정치가 여야 간의 적대적 공생을 통

해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며 기득권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논의가 무르익을 때 어느 순간에 가면 현역 정치인들 중에도 함께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천 의원은 "호남을 넘어 전국적 개혁정당을 만들려는 요구가 많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미 비전과 수권 능력을 상실했고 자체 혁신을 통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혁신위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면서 신당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무소속 천정배 의원 진영에서는 신당 창당의 정치적 명분과 관련, 야권 재편을 넘어 전반적인 정치권 재편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당을 통해 정치권을 재편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당 창당의 정치적 명분은 물론 여론과 야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재 풀만 잘 구성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정배 의원 측 관계자는 "신당 창당은 지역적으로 호남을 넘어 전국 정당이 돼야 하며 정치적 명분도 단순한 야권 재편이 아닌 정치권 재편이 돼야 국민적 지지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권은 진박과 비박, 야권은 진노와 비노로 갈리면서 민생의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당

이 보다 더 가슴 아픈 그림은 없으리라



(120) 생명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산다는 것은 행복만도 고통만도 아니겠지만 멕시코 출신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예술과 생애는 거의 처절한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일기장의 마지막 글귀처럼 인종을 앞두 고서야 비로소 고통과 작별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오래전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처음 접하면서 '이보다 더 불행하고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그림은 없으리라'고 탄식했던 때가 생각난다. 어린 시절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았던 프리다는 비극적이게도 또 한 번의 사고로 척추와 다리가

골절되면서 일생동안 32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평생 죽음은 그의 곁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프리다는 그 모든 절망을 견디면서 참담한 내면세계를 예술로 완성시켰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다.

지난 주말, 서울 다녀오는 길에 관람했던 '절망에서 피어난 천재화가 프리다'전(소미미술관, 9월4일까지)의 작품들은 세월이 한참 흐른 후인데도 화가의 정신적 육체적 통증이 전이라도 되는 듯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전시된 작품들은 화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그렸다. 늘 혼자이기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화가의 고백처럼 화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처를, 역사를, 삶을 그렸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품은 아니지만, 프리다 칼로의 어떤 작품보다도 내 마



프리다 칼로 작 '생명 만세'(1954년)

음을 편안하게 이끄는 것은 멕시코의 열대 과일과 수박을 그린 '생명 만세'(1954년 작)이다. 빨강 노랑 초록색 등 최소한의 색채를 사용하고, 형태의 윤곽선이 거칠게 표현된 화면 가운데 과일 속 스페인어 'VIVA LA VIDA(생명 만세)'가 선명하다. '생명 만세'는 화가가 가장 외치고 싶었을 강인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화가의 안타까운 모성 본능은 작품에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강한 집착과 유대감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소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